

2011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고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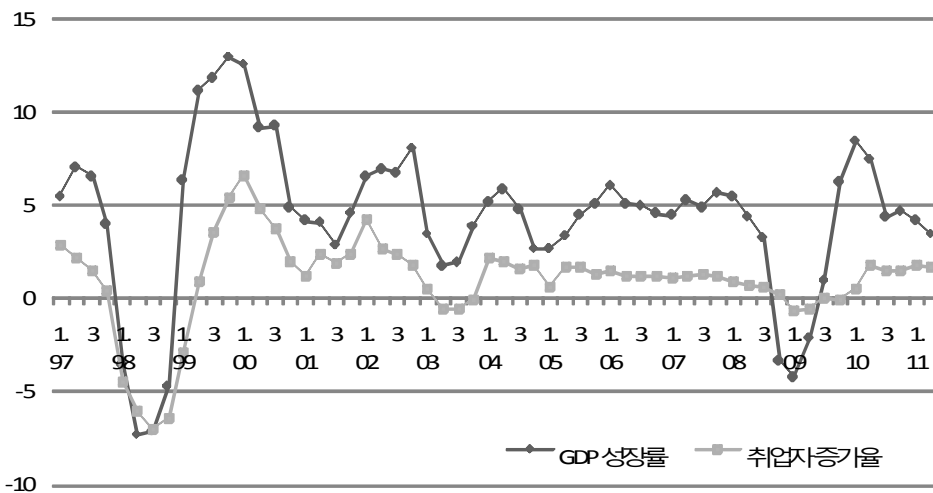
동향분석팀

I. 개관: 일자리 회복 지속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 회복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지속하며 2011년 1~6월 취업자수(24,016천 명)는 2010년의 고용개선 추세가 지속되어 전년 동기에 비해 412천 명 증가했다(그림 2, 3 참조). 카드 사태에서 빠져나와 고용회복이 이루어지던 2004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대의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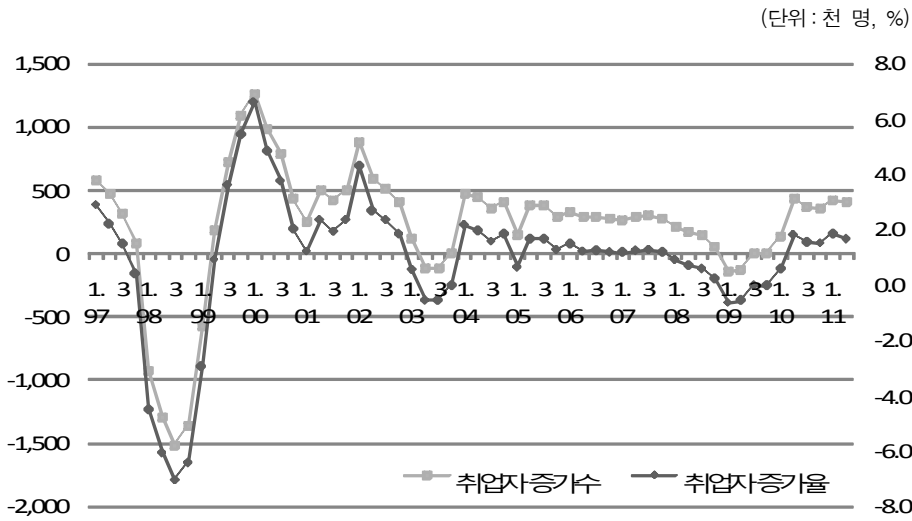
[그림 1] GDP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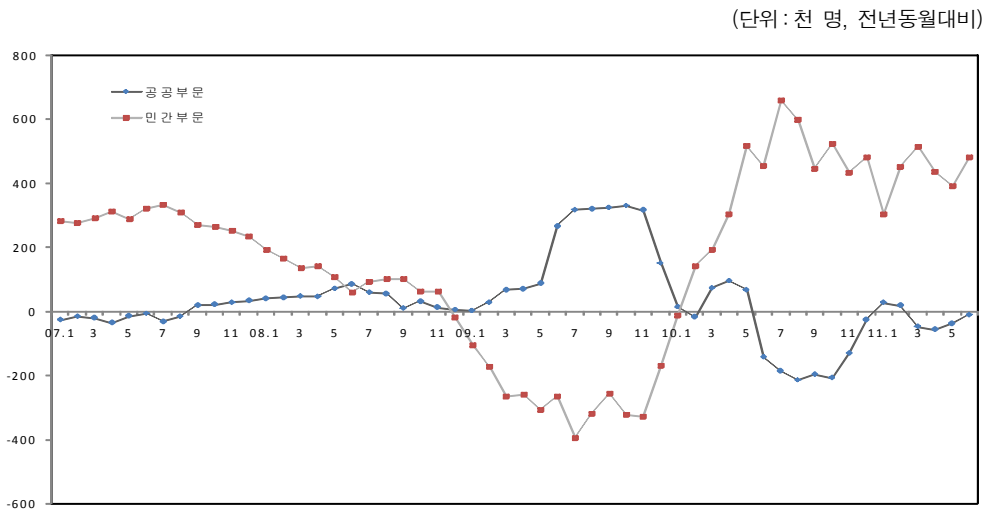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취업자 증가수와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주: 공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을 의미하며, 이외의 산업은 모두 민간으로 간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2%p 상승한 61.0%를 기록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0.1%p 증가하였고, 여성은 0.3%p 증가하여 여성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나타냈다.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66.1%로 나타났으며, 남성(0.3%p)과 여성(0.5%p) 모두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58.7%를 기록하였는데 남성은 0.4%p 증가한 70.1%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3%p 증가한 47.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고용률인 59.4%에는 이르지 못했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0.5%p 상승한 63.5%를 기록하였고, 남성(0.6%p)과 여성(0.5%p) 모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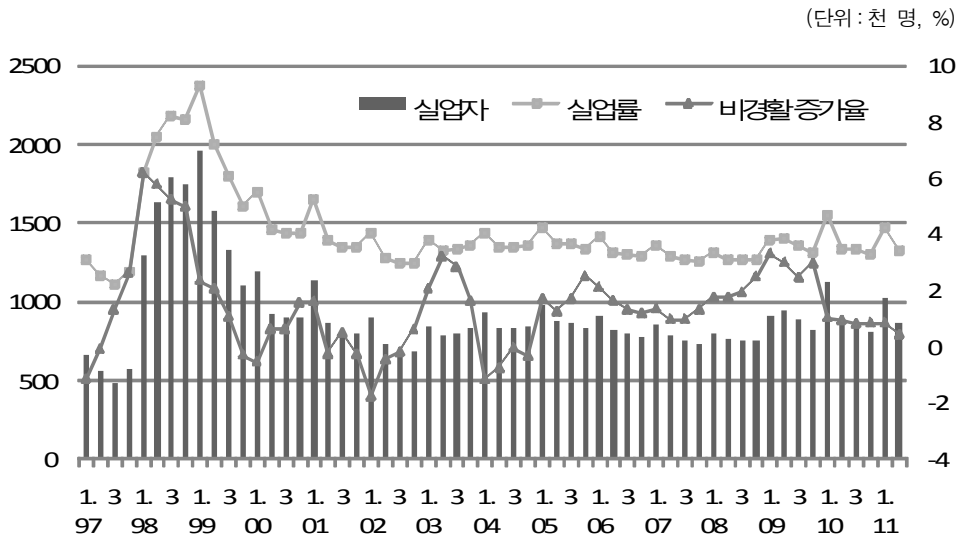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 상	2010. 상	2011. 상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8,762	39,170	39,597	40,092	40,590	39,964	40,476	40,938
	(증가율)	(1.2)	(1.1)	(1.1)	(1.2)	(1.2)	(1.2)	(1.3)	(1.1)
	남성	18,863	19,084	19,324	19,596	19,849	19,532	19,793	20,020
	여성	19,899	20,086	20,273	20,496	20,741	20,432	20,683	20,918
	경제활동참가자수	23,978	24,216	24,347	24,394	24,748	24,246	24,602	24,962
	(증가율)	(1.0)	(1.0)	(0.5)	(0.2)	(1.5)	(0.0)	(1.5)	(1.5)
	경제활동참가율	61.9	61.8	61.5	60.8	61.0	60.7	60.8	61.0
	(남성)	(74.1)	(74.0)	(73.5)	(73.1)	(73.0)	(73.0)	(72.9)	(73.0)
	(여성)	(50.3)	(50.2)	(50.0)	(49.2)	(49.4)	(48.9)	(49.2)	(49.5)
	취업자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3,321	23,603	24,016
	(증가율)	(1.3)	(1.2)	(0.6)	-(0.3)	(1.4)	-(0.6)	(1.2)	(1.7)
	(증감수)	(295)	(282)	(145)	-(72)	(323)	-(140)	(283)	(412)
	고용률	59.7	59.8	59.5	58.6	58.7	58.4	58.3	58.7
	(남성)	(71.3)	(71.3)	(70.9)	(70.1)	(70.1)	(69.8)	(69.7)	(70.1)
	(여성)	(48.8)	(48.9)	(48.7)	(47.7)	(47.8)	(47.4)	(47.4)	(47.7)
	실업자	827	783	769	889	920	926	999	947
	실업률	3.5	3.2	3.2	3.6	3.7	3.8	4.1	3.8
	(남성)	(3.8)	(3.7)	(3.6)	(4.1)	(4.0)	(4.3)	(4.3)	(3.9)
	(여성)	(2.9)	(2.6)	(2.6)	(3.0)	(3.3)	(3.2)	(3.7)	(3.6)
	비경제활동인구	14,784	14,954	15,251	15,698	15,841	15,718	15,874	15,976
(증가율)	(1.6)	(1.2)	(2.0)	(2.9)	(0.9)	(3.1)	(1.0)	(0.6)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66.2	66.2	66.0	65.4	65.8	65.3	65.7	66.1
	(남성)	(77.8)	(77.6)	(77.3)	(76.9)	(77.1)	(76.8)	(77.0)	(77.3)
	(여성)	(54.8)	(54.8)	(54.7)	(53.9)	(54.5)	(53.8)	(54.3)	(54.8)
	고용률	63.8	63.9	63.8	62.9	63.3	62.7	63.0	63.5
	(남성)	(74.7)	(74.6)	(74.4)	(73.6)	(73.9)	(73.4)	(73.6)	(74.2)
	(여성)	(53.1)	(53.2)	(53.2)	(52.2)	(52.6)	(52.0)	(52.3)	(5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4] 실업자수, 실업률, 비경활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직활동이 증가되어 있는 영향으로 2011년 상반기 실업자는 2010년에 비해 52천 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만 명에 가까운 947천 명을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전년 동기에 비해 0.3%p 감소했지만 3.8%를 나타냈다. 이는 금융위기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연속 하락했다. 2011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하여 15,976천 명을 기록했다.

II.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25~29세, 40대, 50대 고용률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2011년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자가 주도하고 있다. 연령별 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50대에서 2010년 상반기 대비 290천 명이 증가했으며, 60세 이상 140천 명, 40대 68천 명 순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5~29세 77천 명, 30대 23천 명, 20~24세 14천 명 순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생산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증감
15 ~ 19세	2007	3,202	2,970	232	211	22	7.3	6.6	9.3	
	2008	3,238	3,026	212	190	22	6.5	5.9	10.2	-21
	2009	3,284	3,082	203	178	25	6.2	5.4	12.3	-12
	2010	3,337	3,105	232	204	28	7.0	6.1	11.9	27
	2008. 상반기	3,230	3,007	223	203	20	6.9	6.3	9.1	
	2009. 상반기	3,268	3,071	198	172	26	6.0	5.3	13.1	-31
	2010. 상반기	3,329	3,100	229	196	33	6.9	5.9	14.4	25
	2011. 상반기	3,351	3,097	254	226	28	7.6	6.7	11.0	30
20 ~ 24세	2007	2,735	1,296	1,439	1,313	126	52.6	48.0	8.7	
	2008	2,681	1,339	1,342	1,220	123	50.1	45.5	9.2	-94
	2009	2,650	1,346	1,305	1,181	124	49.2	44.6	9.5	-39
	2010	2,644	1,351	1,293	1,171	122	48.9	44.3	9.5	-10
	2008. 상반기	2,691	1,311	1,380	1,249	131	51.3	46.4	9.5	
	2009. 상반기	2,663	1,364	1,298	1,171	127	48.8	44.0	9.8	-78
	2010. 상반기	2,642	1,336	1,306	1,168	137	49.4	44.2	10.5	-3
	2011. 상반기	2,660	1,376	1,284	1,154	130	48.3	43.4	10.1	-14
25 ~ 29세	2007	3,918	1,059	2,859	2,679	180	73.0	68.4	6.3	
	2008	3,903	1,058	2,844	2,674	170	72.9	68.5	6.0	-4
	2009	3,846	1,049	2,797	2,598	199	72.7	67.5	7.1	-76
	2010	3,725	996	2,729	2,539	190	73.3	68.2	7.0	-59
	2008. 상반기	3,909	1,061	2,848	2,672	176	72.9	68.3	6.2	
	2009. 상반기	3,870	1,038	2,832	2,625	206	73.2	67.8	7.3	-46
	2010. 상반기	3,762	993	2,769	2,569	200	73.6	68.3	7.2	-56
	2011. 상반기	3,612	925	2,687	2,492	195	74.4	69.0	7.2	-77
30대	2007	8,282	2,049	6,233	6,035	198	75.3	72.9	3.2	
	2008	8,248	2,045	6,203	6,010	194	75.2	72.9	3.1	-26
	2009	8,186	2,130	6,057	5,837	220	74.0	71.3	3.6	-173
	2010	8,102	2,055	6,047	5,833	214	74.6	72.0	3.5	-4
	2008. 상반기	8,259	2,035	6,224	6,034	190	75.4	73.1	3.0	
	2009. 상반기	8,207	2,128	6,080	5,848	232	74.1	71.3	3.8	-186
	2010. 상반기	8,123	2,077	6,046	5,820	226	74.4	71.7	3.7	-27
	2011. 상반기	8,040	2,019	6,021	5,797	224	74.9	72.1	3.7	-23

		생산가능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수 증감
40대	2007	8,282	1,663	6,619	6,484	135	79.9	78.3	2.0	
	2008	8,353	1,663	6,690	6,548	142	80.1	78.4	2.1	64
	2009	8,402	1,714	6,687	6,524	163	79.6	77.7	2.4	-24
	2010	8,418	1,699	6,719	6,553	165	79.8	77.8	2.5	29
	2008. 상반기	8,336	1,672	6,664	6,515	149	79.9	78.2	2.2	
	2009. 상반기	8,395	1,718	6,677	6,506	171	79.5	77.5	2.6	-9
	2010. 상반기	8,416	1,723	6,692	6,519	173	79.5	77.5	2.6	14
	2011. 상반기	8,427	1,684	6,743	6,587	156	80.0	78.2	2.3	68
50대	2007	5,873	1,693	4,180	4,093	87	71.2	69.7	2.1	
	2008	6,091	1,703	4,388	4,300	87	72.0	70.6	2.0	207
	2009	6,394	1,782	4,612	4,498	114	72.1	70.3	2.5	198
	2010	6,754	1,842	4,912	4,792	120	72.7	70.9	2.5	294
	2008. 상반기	6,030	1,720	4,310	4,228	82	71.5	70.1	1.9	
	2009. 상반기	6,302	1,783	4,520	4,402	117	71.7	69.9	2.6	174
	2010. 상반기	6,666	1,840	4,826	4,699	127	72.4	70.5	2.6	297
	2011. 상반기	7,015	1,907	5,108	4,988	120	72.8	71.1	2.3	290
60세 이상	2007	6,878	4,224	2,654	2,618	36	38.6	38.1	1.4	
	2008	7,084	4,417	2,667	2,636	32	37.7	37.2	1.2	18
	2009	7,330	4,595	2,734	2,690	44	37.3	36.7	1.6	54
	2010	7,610	4,794	2,816	2,737	80	37.0	36.0	2.8	47
	2008. 상반기	7,029	4,433	2,596	2,560	36	36.9	36.4	1.4	
	2009. 상반기	7,258	4,616	2,642	2,596	46	36.4	35.8	1.7	36
	2010. 상반기	7,539	4,804	2,734	2,631	103	36.3	34.9	3.8	35
	2011. 상반기	7,833	4,968	2,865	2,771	94	36.6	35.4	3.3	1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청년층 취업자수 감소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려면 고용률 추이를 보아야 한다. <표 3>을 보면 2011년 상반기 청년층 고용부진은 20~24세의 고용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10년 상반기 대비 0.8%p 하락하였다. 그러나 25~29세는 0.7%p 상승해 이미 국제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5~29세 고용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매 연도 동기 중 가장 고용률이 높았던 2005년 상반기 수준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30대는 2010년 상반기 대비 고용률이 0.4%p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지 못했다. 40대는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78.2%p의 고용률

<표 3>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998. 상반기	8.7	50.7	63.9	71.3	75.0	66.1	35.4
1999. 상반기	8.2	49.9	61.0	70.0	73.3	64.4	35.4
2000. 상반기	10.0	52.1	65.3	72.1	75.8	66.0	36.6
2001. 상반기	10.0	51.9	66.2	72.3	75.9	65.5	36.3
2002. 상반기	9.9	53.9	67.3	72.9	77.1	67.2	37.7
2003. 상반기	8.4	51.9	67.2	72.9	76.8	67.0	35.1
2004. 상반기	8.2	52.2	68.6	72.8	77.1	67.3	36.2
2005. 상반기	8.2	51.9	69.0	72.1	76.8	67.6	36.3
2006. 상반기	7.2	49.6	68.4	73.1	77.4	68.1	36.2
2007. 상반기	6.7	48.2	68.4	72.6	78.2	68.8	37.5
2008. 상반기	6.3	46.4	68.3	73.1	78.2	70.1	36.4
2009. 상반기	5.3	44.0	67.8	71.3	77.5	69.9	35.8
2010. 상반기	5.9	44.2	68.3	71.7	77.5	70.5	34.9
2011. 상반기	6.7	43.4	69.0	72.1	78.2	71.1	3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50대의 경우 71.1%로 1998년 이후 매 연도 동기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도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했지만 2008년 상반기 수준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요약하면, 아직 고용률이 국제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24세, 30대,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표 4>에서 20~24세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녀 모두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했다(각각 1.0%p, 0.7%p). 표본수가 얼마 안 되어 해석하기 어려운 대졸자를 제외하고 학력별로 보면 남성은 전문대졸자의 고용률이 하락했고, 여성은 고졸 이하 고용률이 하락했다.

25~29세는 남녀 모두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0.7%p씩 상승했다. 학력별로 보면 남성은 대졸 이상만 고용률이 하락했고, 반대로 여성은 대졸 이상만 고용률이 상승했다. 2008년 상반기보다 25~29세 고용률이 높아졌는데,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고용률 증가에 기인했으므로, 이 연령대 고용률의 전체적인 상승에서 여성 대졸자의 고용률 상승이 특히 중요했던 셈이다.

30대도 남녀 모두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0.3%p씩 상승했다. 학력별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전문대졸 고용률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상승했다. 대졸 이상 고용

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대졸 고용률은 아직 그에 못 미치는 상태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 전문대졸과 대졸

<표 4> 연령·성·학력별 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15 ~ 19세	고졸 이하	6.2	5.2	5.9	6.7	5.2	4.2	4.1	5.6	7.4	6.4	7.8	7.9
	전 체	6.3	5.3	5.9	6.7	5.2	4.2	4.1	5.6	7.4	6.4	7.8	8.0
20 ~ 24세	고졸 이하	37.5	34.7	35.4	34.6	36.4	34.1	33.9	34.3	38.7	35.2	36.9	34.9
	전문대졸	75.5	73.1	73.6	73.4	64.3	66.3	68.9	60.4	78.8	75.1	75.1	77.3
	대졸 이상	59.0	63.1	59.8	60.3	53.5	47.7	57.5	43.1	59.9	65.0	60.1	62.8
	전 체	46.4	44.0	44.2	43.4	39.6	37.3	37.8	36.8	51.3	48.9	49.0	48.3
25 ~ 29세	고졸 이하	59.8	58.5	60.0	59.8	63.4	62.7	62.7	62.8	54.7	52.4	55.7	55.1
	전문대졸	76.2	75.5	75.7	75.1	82.2	80.8	83.1	84.0	71.4	71.4	70.4	68.4
	대졸 이상	72.5	72.9	72.0	73.7	73.2	72.8	73.2	73.0	71.9	73.0	71.0	74.4
	전 체	68.3	67.8	68.3	69.0	70.6	70.0	70.3	71.0	66.0	65.6	66.2	66.9
30대	고졸 이하	70.0	67.2	67.3	67.4	87.8	85.8	86.1	85.8	53.9	50.1	49.8	49.9
	전문대졸	72.4	72.0	71.1	70.7	92.2	92.3	90.4	92.2	53.7	52.0	52.2	50.9
	대졸 이상	77.8	76.4	77.3	78.0	92.4	92.0	92.0	92.4	58.2	56.2	58.7	60.0
	전 체	73.1	71.3	71.7	72.1	90.3	89.3	89.2	89.7	55.2	52.4	53.2	53.6
40대	고졸 이하	76.1	75.3	75.3	76.6	89.4	88.0	88.3	88.3	65.5	65.3	65.2	67.4
	전문대졸	82.6	81.7	78.9	79.2	95.3	94.7	93.6	92.9	64.5	63.6	61.3	63.3
	대졸 이상	82.6	81.5	81.8	81.2	94.8	94.1	94.1	94.9	59.3	59.0	59.8	57.2
	전 체	78.2	77.5	77.5	78.2	91.6	90.7	90.8	91.2	64.4	64.0	63.8	64.8
50대	고졸 이하	68.4	68.3	69.0	69.5	83.2	82.4	82.9	83.6	56.0	56.4	57.3	57.7
	전문대졸	81.5	78.8	76.4	76.3	92.5	87.2	86.3	87.9	58.3	60.5	55.1	53.5
	대졸 이상	78.6	77.2	77.6	79.0	88.8	89.0	89.6	90.0	49.7	48.3	49.9	52.4
	전 체	70.1	69.9	70.5	71.1	84.6	83.9	84.4	85.1	55.6	55.7	56.6	57.2
60세 이상	고졸 이하	36.2	35.8	34.9	35.3	50.4	50.0	49.2	49.5	26.8	26.3	25.4	25.6
	전문대졸	35.6	33.2	32.0	43.0	45.7	45.3	42.3	57.2	17.1	16.0	15.9	23.0
	대졸 이상	39.3	36.1	34.9	36.0	42.3	40.0	39.2	40.5	26.0	19.2	17.4	19.6
	전 체	36.4	35.8	34.9	35.4	49.3	48.6	47.7	48.4	26.7	26.1	25.2	25.4

주: 15 ~ 19세는 고졸 이하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표본수가 매우 적으므로 보고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상은 2008년 상반기와 같은 고용률에 도달했고, 고졸 이하만 낮다. 여성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고용률은 당시보다 낮고 대졸 이상은 높은 상태다. 종합하면, 30대 고용률이 아직 부진한 이유는 고졸 이하 고용률이 부진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용률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40대도 남녀 모두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4%p, 1.0%p씩 상승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0.6%p 하락했고, 나머지 학력의 고용률은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대졸 이상 고용률 하락은 여성 대졸자 고용률이 59.8%에서 57.2%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성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고용률은 상승했다. 40대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상반기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남성 대졸자, 여성 고졸 이하자의 고용률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두 집단만 2008년 상반기 고용률을 초과해 상승했다.

50대도 남녀 모두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7%p, 0.6%p씩 상승했다. 표본수가 많지 않아 깊이 안정적이지 않은 전문대졸을 제외하고, 학력별로 보면 고용률이 고루 상승해 고졸 이하, 대졸 이상 모두 2008년 상반기 고용률 수준을 넘어섰다. 성별로 보아도 남녀 모두 학력별 고용률이 상승했다.

60세 이상도 남녀 모두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7%p, 0.2%p씩 상승했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모든 학력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¹⁾

2. 상용직 중심 취업자 증가 지속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총 취업자 증가규모는 50대가 가장 크고, 60세 이상, 40대 순이었지만, 상용직 증가규모는 40대가 가장 크고 30대, 50대 순이다. 무급가족종사자는 2008년 상반기 이래 계속 줄어 왔는데,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20천 명 증가하였다. 다른 종사상 지위는 모두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일용직,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천 명, 6천 명 증가하였다. 여성은 상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상용직 증가에서 여성의 증가규모가 남성보다 컸다. 남성은 전년동기대비 265천 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348천 명 증가하였다. 대신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에서 감소폭이 남성보다 커 전체적으로는 남성 취업자가 더 많이 증가했다.

상용직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나머지 종사상 지위는 증감의 편차가 다소 있다. 20~24세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상용직(9천 명), 일용직(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3천 명)가 증가했고, 25~29세는 상용직이 25천 명 증가했다. 30대는 상용직이 178천 명 증가했으며, 고용주도 3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 명 증가했다. 40대는 상용직만 230

1) 성별 학력은 전문대졸, 대졸 이상 모두 표본수가 작으므로 따로 해석하지 않는다.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천 명)

	전 체					남 성			여 성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10~'11 증감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증감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증감
상용직	8,910	9,225	9,934	10,547	613	6,600	6,865	265	3,333	3,681	348
임시직	5,103	5,032	5,035	4,922	-113	2,075	2,064	-10	2,960	2,858	-102
일용직	2,139	2,018	1,804	1,774	-30	957	960	3	847	813	-33
고용주	1,538	1,499	1,509	1,493	-16	1,183	1,174	-10	325	319	-7
자영업자	4,406	4,204	4,096	4,035	-61	2,798	2,804	6	1,298	1,231	-67
무급가족종사	1,365	1,342	1,226	1,245	20	181	171	-10	1,045	1,074	30
전 체	23,461	23,321	23,603	24,016	412	13,795	14,039	244	9,808	9,977	1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천 명 증가했다. 50대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증가규모는 상용직이 144천 명으로 가장 컸고, 임시직(51천 명), 자영업자(37천 명) 순이었다. 60세 이상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43천 명), 일용직(39천 명), 상용직(28천 명) 순이었다.

<표 6> 연령별 종사상 지위 변동

(단위: 천 명, %)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08~09. 증감	2009~10. 증감	2010~11. 증감
20~24세	상용직	484	443	450	458	-40	6	9
	임시직	494	478	483	472	-16	5	-11
	일용직	185	170	146	146	-16	-24	1
	고용주	5	3	2	1	-2	-1	0
	자영업자	50	49	58	42	-1	9	-16
	무급가족종사자	32	29	31	34	-3	2	3
	전 체	1,249	1,171	1,168	1,154	-78	-3	-14
25~29세	상용직	1,653	1,624	1,639	1,664	-29	15	25
	임시직	699	697	661	591	-2	-37	-69
	일용직	99	92	83	60	-7	-9	-22
	고용주	42	38	37	34	-4	-1	-3
	자영업자	127	120	103	96	-8	-16	-7
	무급가족종사자	52	55	46	47	3	-9	0
	전 체	2,672	2,625	2,569	2,492	-46	-56	-77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08~09. 증감	2009~10. 증감	2010~11. 증감
30대	상용직	3,114	3,211	3,348	3,525	97	137	178
	임시직	1,308	1,223	1,156	1,067	-85	-66	-89
	일용직	361	304	243	218	-57	-61	-25
	고용주	349	310	324	327	-39	14	3
	자영업자	687	613	586	493	-75	-27	-93
	무급가족종사자	215	188	163	165	-27	-24	2
	전 체	6,034	5,848	5,820	5,797	-186	-27	-23
40대	상용직	2,266	2,444	2,686	2,916	178	242	230
	임시직	1,314	1,289	1,290	1,260	-25	1	-30
	일용직	610	591	502	450	-19	-88	-52
	고용주	642	633	625	584	-9	-8	-41
	자영업자	1,260	1,144	1,055	1,029	-117	-89	-26
	무급가족종사자	423	406	362	350	-17	-44	-12
	전 체	6,515	6,506	6,519	6,587	-9	14	68
50대	상용직	1,144	1,244	1,454	1,598	100	211	144
	임시직	745	761	829	880	16	67	51
	일용직	480	481	462	485	2	-19	23
	고용주	379	394	413	429	16	18	16
	자영업자	1,129	1,158	1,190	1,228	29	33	37
	무급가족종사자	352	364	351	368	12	-13	17
	전 체	4,228	4,402	4,699	4,988	174	297	290
60세 이상	상용직	234	250	342	370	16	92	28
	임시직	479	520	542	556	42	22	14
	일용직	298	298	275	314	0	-23	39
	고용주	121	120	108	117	-1	-12	9
	자영업자	1,142	1,115	1,095	1,139	-27	-20	43
	무급가족종사자	285	293	267	274	7	-25	7
	전 체	2,560	2,596	2,631	2,771	36	35	1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성별로는 여성에서 상용직 증가 규모가 남성보다 컸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의 상용직 증가 규모가 남성보다 컸고,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의 상용직 증가 규모가 여성보다 컸다. 임시직 감소 규모도 여성이 컸는데, 연령별로 보면 특히 30, 40대에서 그렇다. 50대에서는 여성 상용직 증가가 남성보다 작은 대신 임시직 증가 규모가 남성보다 컸다. 남성은 50대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여성은 일용직, 자영업자에서 감소했다.

〈표 7〉 연령·성별 종사상 지위 변동

(단위: 천 명, %)

		남 성					여 성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10~'11. 증감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10~'11. 증감
20~24세	상용직	132	122	123	117	-6	351	321	327	341	14
	임시직	188	180	192	193	1	305	298	290	279	-12
	일용직	96	87	73	76	3	89	82	73	71	-2
	고용주	1	1	1		-1	5	2	1	0	-1
	자영업자	15	14	19	15	-3	35	35	39	27	-12
	무급가족종사자	18	16	20	18	-1	14	14	11	15	4
	전 체	449	420	427	421	-6	800	751	741	733	-8
25~29세	상용직	865	851	832	843	11	788	773	807	821	13
	임시직	354	348	338	304	-34	346	349	322	287	-35
	일용직	68	66	59	45	-14	31	26	24	15	-9
	고용주	27	25	30	26	-4	15	13	7	8	1
	자영업자	63	61	57	59	3	64	58	47	36	-10
	무급가족종사자	28	31	34	31	-3	23	24	12	15	4
	전 체	1,404	1,382	1,349	1,309	-40	1,268	1,243	1,220	1,183	-37
30대	상용직	2,172	2,288	2,341	2,420	78	942	924	1,006	1,106	99
	임시직	629	575	559	542	-17	678	648	597	525	-72
	일용직	218	193	145	125	-20	143	111	98	93	-5
	고용주	267	233	252	253	1	82	77	72	74	2
	자영업자	471	419	376	314	-62	217	194	210	179	-31
	무급가족종사자	43	42	39	39	0	172	145	124	126	2
	전 체	3,799	3,750	3,712	3,693	-18	2,235	2,098	2,109	2,104	-5
40대	상용직	1,707	1,817	1,946	2,029	83	559	627	740	886	146
	임시직	431	408	407	411	4	883	880	883	848	-34
	일용직	329	315	279	258	-21	281	275	223	192	-31
	고용주	509	497	486	456	-30	134	136	139	128	-11
	자영업자	864	796	723	718	-6	396	348	331	311	-20
	무급가족종사자	23	21	28	19	-8	400	384	334	330	-4
	전 체	3,863	3,855	3,869	3,891	22	2,653	2,651	2,650	2,696	46
50대	상용직	902	960	1,079	1,158	80	242	284	376	440	64
	임시직	263	271	283	286	4	482	490	546	593	48
	일용직	266	263	251	278	28	213	218	211	207	-5
	고용주	295	309	330	342	12	84	85	82	87	5
	자영업자	803	821	844	886	41	325	337	346	342	-4
	무급가족종사자	23	24	28	33	5	329	340	323	335	12
	전 체	2,552	2,648	2,814	2,983	169	1,676	1,754	1,885	2,005	121
60세 이상	상용직	197	203	275	292	17	37	48	67	78	11
	임시직	276	283	266	283	17	203	237	277	274	-3
	일용직	127	124	117	137	20	171	174	158	178	20
	고용주	93	92	85	96	11	28	28	23	21	-2
	자영업자	763	783	778	810	31	380	332	317	329	12
	무급가족종사자	31	31	31	26	-5	254	261	237	248	12
	전 체	1,487	1,515	1,552	1,643	91	1,073	1,081	1,079	1,127	4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3.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증가세 확대

2011년 상반기 고용은 2010년에 이어 민간 주도의 고용창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회복과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산업의 호조로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2010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 이전까지 제조업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즉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제조업 고용은 2004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 중 18.8%를 차지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2009년 상반기에는 16.5%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1년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170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중 17.2%를 차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증감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 체		145	-72	323	191	-140	283	412
고용 증감	민간	101	-263	395	134	-229	266	430
	공공	43	191	-71	57	88	16	-17
	제조업	-52	-126	191	-26	-157	117	170
	서비스업	260	179	200	297	96	318	279
	건설업	-37	-91	33	-34	-78	-9	-22
고용 비중	민간	96.4	95.6	96.0	96.4	96.0	96.0	96.1
	공공	3.6	4.4	4.0	3.6	4.0	4.0	3.9
	제조업	16.8	16.3	16.9	17.1	16.5	16.8	17.2
	서비스업	67.9	68.8	68.8	67.8	68.6	69.2	69.1
	도소매업	(22.7)	(22.2)	(21.9)	(22.9)	(22.5)	(22.0)	(21.8)
	숙박 및 음식점업	(12.8)	(12.0)	(11.5)	(12.8)	(12.2)	(11.6)	(1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	(5.2)	(5.4)	(4.6)	(5.1)	(5.3)	(5.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	(5.8)	(6.2)	(6.0)	(5.8)	(6.0)	(6.5)
	공공행정 및 국방	(5.2)	(6.4)	(5.9)	(5.3)	(5.8)	(5.8)	(5.6)
	교육서비스업	(11.1)	(11.3)	(11.0)	(11.1)	(11.3)	(11.2)	(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3)	(6.2)	(7.0)	(5.1)	(6.0)	(6.7)	(7.8)
	건설업	7.7	7.3	7.4	7.7	7.5	7.3	7.1

주: 공공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산업을 의미하며, 이외의 산업은 모두 민간으로 간주함.

()안은 서비스업 내 산업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조업 부문 고용을 들여다보면 임금근로자 주도로 고용창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205천 명 증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10명 중 7명이 상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상용직 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제조업 생산현장에서의 고용계약 행태가 최근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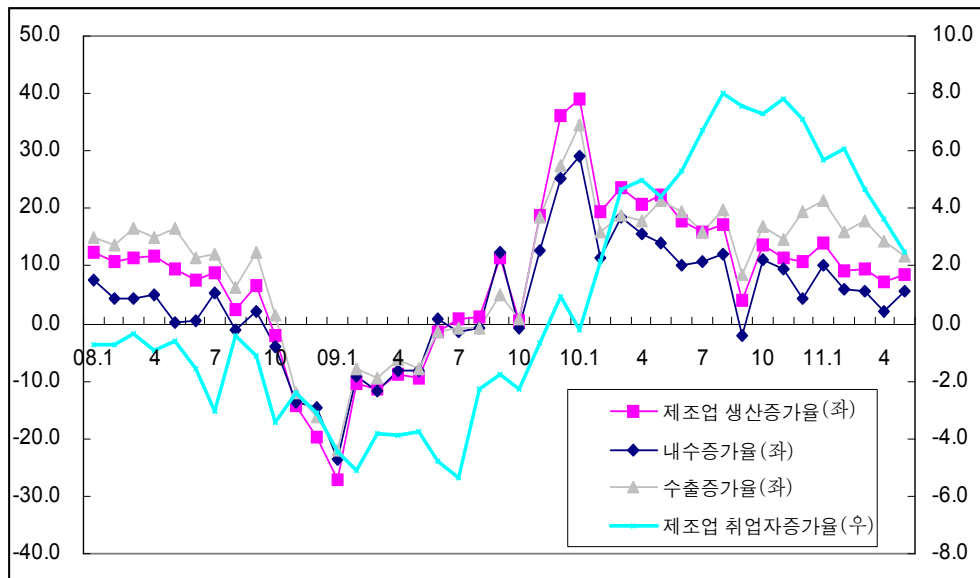
2011년 들어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제조업 취업자증가율은 지속되고 있으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하반기 제조업 고용은 2010년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상반기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2011년 상반기 동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7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세는 상용직 주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고용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관련 산업에서의 고용부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에서의 고용부진은 2010년 6월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동안 157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

[그림 5] 제조업 생산증가율·내수증가율·수출증가율·취업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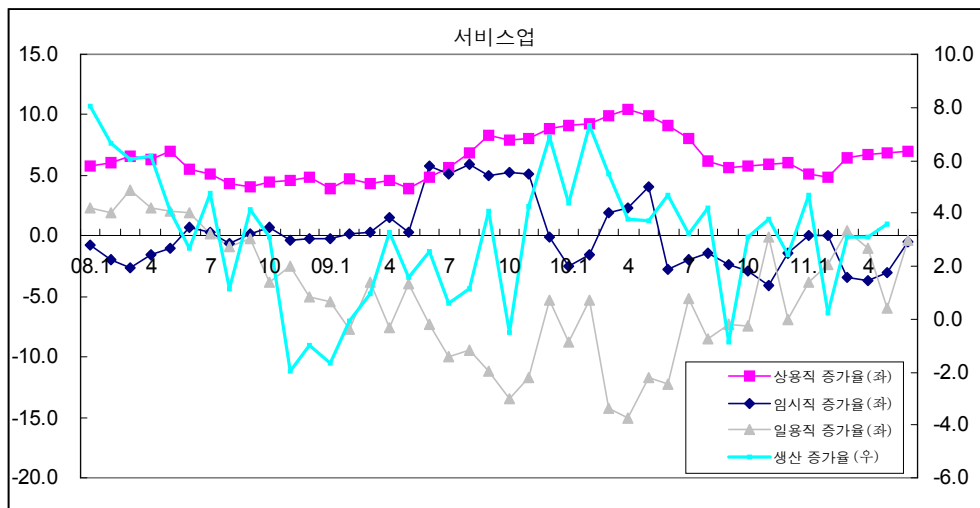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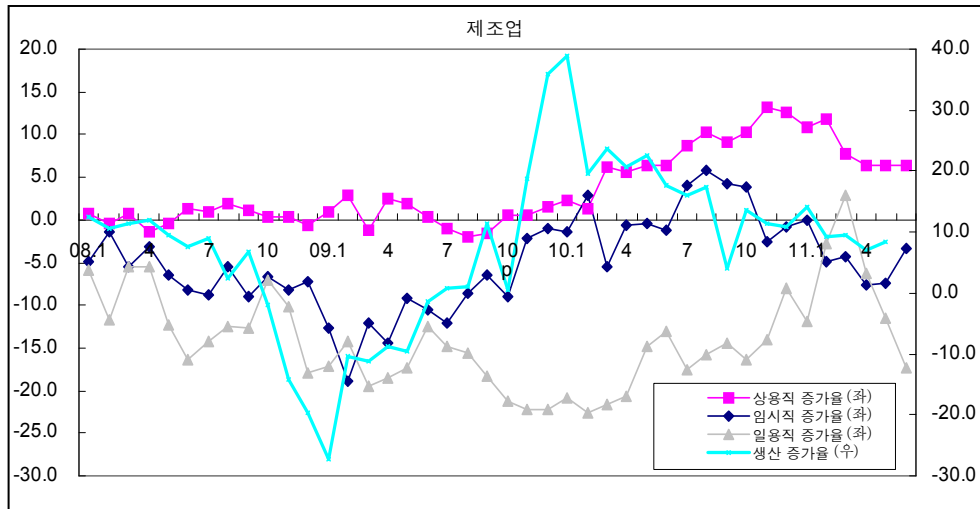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그림 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났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 최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사교육 규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의 20대 연령층의 일자리 감소(-81천 명)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과 임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중소기업 고용의 증가세 확대 및 대기업 고용의 증가세로의 전환

2011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12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350천 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창출되었다. 최근 경기회복 이후 고용창출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고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경기가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2010년 말에 이르러 서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11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62천 명 증가하였다. 대기업에서의 고용은 제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의 제조업 부문 고용은 2005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7천 개 증가한 이래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1년에 들어서면서 상반기 동안 1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에 나타난 현상으로는 우선 20대 고용률이 2011년 상반기에 58.1%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체규모별 20대 연령층에 대한 고용이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의 20대 연령층의 고용은 2011년 상반기 동안 임시직, 일용직, 자영자를 중심으로 120천 명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에서의 20대 고용부진은 주로 교육서비스업과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대기업에서의 20대 고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29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고용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현시점에서 그나마 대기업에서의 20대 고용이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나 2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20대 연령층의 고용비중은 모두 줄고 있어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사업체규모별 신규채용 규모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은 152천 명 감소한 반면 대기업에서의 신규채용은 54천 명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중소기업의 20대 연령층에 대한 신규채용이 전년동기대비 60천 개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 부문에서의 20대 신규채용은 상용직,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8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20대 연령층에 대한 신규채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9천 명 증가하였다.

<표 9>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고용증감 및 연령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300인 미만	고용증감	208	130	548	264	26	532	408	
	고용 비중	20세 미만	1.2	1.1	1.2	1.6	1.4	1.3	1.3
		20대	22.0	21.3	20.3	25.9	24.3	23.3	22.3
		30대	28.6	27.8	27.3	29.7	29.6	28.7	28.7
		40대	26.1	26.4	26.4	24.5	25.1	25.6	25.8
		50대	15.2	15.9	17.0	12.3	13.2	14.0	15.0
60세 이상	7.0	7.5	7.8	6.1	6.4	7.0	6.9		
300인 이상	고용증감	29	118	-31	36	98	-35	62	
	고용 비중	20세 미만	0.4	0.3	0.3	0.7	0.4	0.5	0.4
		20대	23.2	20.7	20.1	25.0	23.9	23.6	23.1
		30대	36.0	36.2	35.0	34.5	35.4	35.8	36.5
		40대	26.8	27.7	29.2	27.5	27.8	27.8	26.7
		50대	12.0	12.9	13.5	11.3	11.4	11.1	11.8
60세 이상	1.6	2.1	1.9	1.1	1.2	1.2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0> 20대 연령층의 사업체규모별 신규채용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8	2009	2010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300인 미만(고용증감)		-104	-92	-52	-86	-110	-26	-120
종사상 지위	상용직	50.7	51.1	53.0	45.2	46.5	49.1	50.4
	임시직	32.9	33.1	32.4	37.2	36.7	35.2	32.9
	일용직	7.5	7.3	6.5	8.2	7.9	7.3	7.9
	고용주	1.3	1.3	1.1	0.9	1.0	0.9	1.3
	자영자	5.3	4.8	4.6	5.3	5.1	4.9	5.1
	무급가족종사자	2.3	2.4	2.5	3.2	2.9	2.6	2.4
근속	1년 미만	45.2	46.4	47.2	45.5	45.6	46.6	44.9
	1~2년 미만	18.9	18.2	18.0	18.3	18.0	19.1	19.3
	2년 이상	35.8	35.4	34.8	36.2	36.4	34.4	35.8
300인 이상(고용증감)		6	-23	-18	1	-14	-33	29
종사상 지위	상용직	85.9	82.5	84.4	83.0	82.7	86.2	87.2
	임시직	12.2	16.3	14.3	14.5	14.4	11.8	10.7
	일용직	1.7	1.1	1.3	2.4	2.9	2.0	2.0
	자영자	0.0	0.0	0.0	0.0	0.0	0.0	0.0
	무급가족종사자	0.2	0.0	0.0	0.1	0.1	0.0	0.2
근속	1년 미만	30.9	33.2	34.1	34.5	32.8	29.3	31.1
	1~2년 미만	19.7	20.7	19.5	19.5	23.5	20.7	19.0
	2년 이상	49.3	46.1	46.5	46.0	43.7	50.0	49.9

주: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를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1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106천 개로 전년대비 약 12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실시로 2011년에 32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대비 27.4%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는 120천 개 사라졌으며, 이 중 임시직 일자리가 86천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11년 하반기 고용전망

1.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세로 상반기 뛰어넘는 성장률 기록할 듯

2011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여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세계경제 회복 추세에 따라 2011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성장률을 넘어서지만 당초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은 4.7~5.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1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0%(2010.12)에서 4.9%(2011.4)로 하향조정 한 후 다시 4.7%(2011.7)로 소폭 낮추어 발표하였다.

〈표 11〉 최근 고용탄력성 추이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연간	상반기
2006	5.2	1.3	0.249(0.329)	0.241(0.353)
2007	5.1	1.2	0.239(0.315)	0.246(0.337)
2008	2.3	0.6	0.267(0.312)	0.167(0.315)
2009	0.3	-0.3	-0.943(0.301)	0.193(0.328)
2010	6.2	1.4	0.223(0.263)	0.153(0.295)
2011	4.3(한국은행)	1.5	0.348(0.295)	0.459(0.309)
	4.5(기획재정부)	1.5	0.334(0.294)	

주: ()안은 2000년 기준 기간평균 고용탄력성임.
 201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3.8%(한국은행)로 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2> 각 기관의 하반기 경기 및 고용전망

(단위: %, 만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6.2	3.8	4.7	4.3	3.9	5.0	4.5
민간소비	4.1	3.0	3.6	3.3	3.1	3.7	3.4
상품수출	28.3	24.4	17.2	20.6	25.0	16.7	20.6
물가	2.9	4.3	3.8	4.0	4.3	3.8	4.0
취업자수	32	41	30	35	38	28	33
실업률	3.7	3.8	3.2	3.5	-	-	3.5

주: ()안은 기획재정부 전망수치임.
 자료: 한국은행(2011. 7),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기획재정부(2011. 6),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의 고용탄력성은 0.459를 기록하여 고용창출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1년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304천 명 내외, 연간 358천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가 유지되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개선되어 2011년 상반기 고용은 민간부문 주도로 전년동기대비 412천 명 증가하였다. 2011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기저효과와 작용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고용지표 전망치를 보면 취업자는 1.3% 증가한 304천 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3%, 고용률은 59.2%, 실업자수는 870천 명 내외, 실업률은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 4.3% 기준에서는 취업자가 358천 명 내외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율은 1.5%를 기록함으로써 2010년에 비해 취업자증가율이 0.1%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각각 61.1%, 58.9%로 전망되어 2010년에 비해 고용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연간 취업자증가율이 1.5%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358천 명 내외의 고용이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2011년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연간 4.3% 성장률 기준)			2011 (연간 4.5% 성장률 기준)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p	8.0	4.5	6.2	3.8	4.7	4.3	3.8	5.0	4.5
생산가능인구	40,477	40,704	40,590	40,938	41,159	41,049	40,938	41,159	41,049
경제활동인구	24,602	24,895	24,748	24,963	25,226	25,094	24,963	25,228	25,095
경제활동참가율	60.8	61.2	61.0	61.0	61.3	61.1	61.0	61.3	61.1
취업자	23,604	24,055	23,829	24,016	24,357	24,186	24,016	24,358	24,187
(증가율)	1.2	1.5	1.4	1.7	1.3	1.5	1.7	1.3	1.5
(증감수)	283	364	323	412	303	357	412	304	358
실업자	999	841	920	947	869	908	947	870	908
실업률	4.1	3.4	3.7	3.8	3.4	3.6	3.8	3.4	3.6
고용률	58.3	59.1	58.7	58.7	59.2	58.9	58.7	59.2	58.9
비경제활동인구	15,874	15,976	15,841	15,976	15,933	15,954	15,976	15,932	15,954

주: p는 전망치임.

201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임.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상용직의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산업의 고용부진은 하반기에도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0대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부진, 자영자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임시직·일용직 일자리의 감소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I**